

‘우물 안 개구리’ 한국야구



10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 7회말 1사 1,2루 상황에서 일본 오타니에게 볼넷을 허용한 한국 이대리가 아쉬워하고 있다. 1루로 출루하며 뽀족 공에 불만 표시하는 오타니. /연합뉴스

프로 출범 만 41년째가 되는 2023년, 한국 야구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이 12일 일본 도쿄 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체코와 3차전에서 선발 박세웅의 4.2이닝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호투 속에 김하성이 솔로홈런 두 방을 치는 등 타선이 살아나 7-3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6년 만에 열린 WBC에서 한국은 초반 연패를 당하는 등 대표팀이 내건 14년 만의 4강 목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한국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2차전에서 4-13으로 완패했다. 7회말 볼드게임 패배 직전에서 겨우 벗어나 최악

WBC, 호주 이어 일본에 4-13 대패...체코 7-3 잡고 간신히 1승 10개 구단 KBO리그 우승에 만 집중...3회 연속 탈락 최악 위기

의 수모는 피했지만 전날 꼭 잡아야 했던 호주에 8점이나 헌납한 한국 마운드는 이날도 13점을 주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호주와 일본 두 경기 실점에서 보듯, 컨디션이 좋은 투수가 누구인지 좀처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투수진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끝려갈 때 추가 실점을 막을 추격조도, 앞서갈 때 상대 예봉을 꺾을 필승조도 없는, 한국 마운드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세계 야구 최강국 결정전이라는 2013·2017·2023 WBC에서 3회 연속 1회전 탈락 위기에 몰린 건 충격적인 결과다.

한국 야구가 추락하고 있다는 전조는 진작에 있었지만,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야구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19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 대만에 0-7로 졌다. 한 수 아래로 여긴 대만에 완패했는데도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슈퍼라운드와 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에 8-10, 3-5로 두 번 모두 졌다.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은 4강에서 일본에 2-5로 패했다. 최악의 멤버끼리 맞붙은 이번에는 점수 차이가 9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메이저리거가 없는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에도

연패한 한국은 6개 나라가 출전한 도쿄올림픽에서 4위에 머물렀다. 이처럼 한국은 2015년 이후 8년째 굶직한 국제 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타자도 문제지만 평균 이하로 고꾸라진 투수 기량이 결정적이다. 과거 한국 투수 중에서 '일본 킬러' 구대성, '대만 킬러' 정민태 등 강팀을 잡을 '표적 킬러'가 사라졌다. 김광현의 뒤를 이을 좌완 일류 킬러 재목을 못 키워낸 게 KBO리그의 현실이다. KBO는 '스트라이크존의 정상화'를 통한 사실상의 스트라이크존 확대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상황이라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영건들의 성장은 더디고, 한국 야구 황금기를 이끈 주역들은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정후(키움)마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면 한국의 간판이라고 내세울 만한 선수를 찾기 어려운 형국인데도 프로 10개 구단은 자국리그 우승이라는 '내수'에만 치중한다. 각 구단이 애지중지 여기는 KBO리그 스타라는 선수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통할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수년째 거듭된 대표팀 실패를 답답하지 않으려면 KBO 사무국, 프로 10개 구단이 심각하게 현안을 인식하고 대표팀 선발, 지원,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리그 우승에만 열안이 돼 새로운 대표팀 발전 방안 수립을 등한시한다면 한국 야구는 지금의 변방국 처지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자초한 한국 야구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마운드 경쟁 2라운드'

앤더슨·메디나 무실점 피칭 황동하·곽도규 신예들 '눈길'

치열해진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 싸움, 두 번째 막이 올랐다.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소화한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귀국길에 올랐다. 10일 하루 휴식을 취한 선수단은 11일 챔피언스필드에 모여 다시 스프라이크를 쏘며 연습했다. 이날 선수단은 퓨처스 선수단으로 구성된 블랙팀과 1군 캠프단으로 짜인 화이트팀으로 나눠 자체 연습경기를 하며 '엔트리 경쟁 2막'을 열었다. 결과는 톱타자 김도영의 3안타 3도루 활약을 앞세운 화이트팀의 8-0 승리였다. 예상대로 화이트팀의 승리로 자체연습경기가 마무리됐지만 블랙팀의 신예 투수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새 외국인 듀오 앤더슨과 메디나가 나란히 출격하면서 마운드에 쏠린 시선. 앤더슨과 메디나는 새로운 안방인 챔피언스필드의 마운드에 처음 올라 각각 2.1이닝과 2이닝을 소화했다. 앤더슨은 오정환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했지만 24개의 공으로 7명의 타자를 상대,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작구 최고 구속도 150km를 찍었다. 메디나도 28개의 공으로 2이닝을 처리했다. 김재현에게 투수 내야 안타는 내줬지만 2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작구 최고 구속은 147km. 두 선수 등판을 마무리한 뒤에도 마운드에 시선이 집중됐다. 블랙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온 황동하와 이어 나온 곽도규가 김중국 감독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어필 무대를 가졌다. 황동하는 2022년 2차 7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

단한 고졸 2년 차 선수다. KIA 유니폼을 입은 정을 인상고 출신의 첫 선수로 지난해 퓨처스리그 21경기에 나와 55.2이닝을 소화하면서 5.34의 평균자책점으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황동하는 빠른 템포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았다. 공을 잡자마자 바로 피칭을 하는 공격적인 승부에 나섰다. 김규성을 3구째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이어 앞선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기록했던 김도영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고, 김호영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면서 14개의 공으로 빠르게 이닝을 마무리했다. 작구 최고 구속도 143km를 찍으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황동하에 이어 4회 블랙팀 세 번째 투수로 나온 곽도규의 피칭도 인상적이었다. 공주고 출신 곽도규는 KIA가 2023신인 드래프트에서 5라운드에서 지명한 좌완투수다. 좌완 스리쿼터인 곽도규는 이날 최고 148km까지 찍었다. 투심도 146km까지 기록하는 등 까다로운 폼과 스피드로 팀을 대표하는 타자들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를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은 곽도규는 2·3구째 파울을 유도했고, 4구째 빗맞은 타구로 1루 땅볼을 만들었다. 이어 타석에 선 황대인과 김석환의 타구도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격수 땅볼, 포수 땅볼이 기록됐다. 곽도규는 13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들고 박수 갈채 속에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함평에서 칼을 갈고 있던 사이드암 박준표도 11개의 공으로 4타자를 상대하는 등 블랙팀의 마운드 시위를 이어갔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졌던 마운드, 신예 투수들이 새로 경쟁에 가세하면서 KIA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행복한 고민을 이어가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리그 6호 골...토틀넘 기분 좋은 승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틀넘 홋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리그 6호 골로 팀의 기분 좋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손흥민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틀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리스트와 2022-2023 EPL 27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 후반 17분 쐐기골을 책임지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히사롤리송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노팅엄 수비수가 한 차례 건어냈지만, 히사롤리송은 다시 공을 잡아 크로스로 연결했고 손흥민이 이를 왼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웨스트햄전 이후 3경기 만에 리그 6호 골을 기록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각각 2골씩을 넣은 것을 포함하면 올 시즌 공식전에선 10골(3도움)을 작성해 2016-2017시즌부터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더불어 손흥민의 이 골은 자신의 EPL 통산 99호 골이다. 현재 EPL 역대 득점 순위 34위에 자리한 손흥민은 리그에서 한 골을 더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골 고지를 밟게 된다. 이달 2부 세팀인 유나이티드에 저 FA컵 16강에서 탈락하고 AC밀란(이탈리아)에 밀려 UCL 8강 진출에 실패하는 등 최근 공식전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에 그쳤던 토틀넘은 주포인 해리 케



손흥민
인의 멀티골과 손흥민의 쐐기 골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광주FC, 후반 못 버텨...전북현대에 0-2 패배

광주FC가 '우승후보' 전북현대를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승리까지는 쟁기지 못했다. 광주가 12일 전북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3 3라운드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과감한 공격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전북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28분 나온 문선민의 골에 전열이 흐트러졌다. 전반부터 문선민이 열심히 광주 골대를 두드렸다. 전반 4분 문선민의 오른발 슈팅이 힘 없이 골키퍼 김경민 품에 안겼다. 30분에는 왼발로 때린 공을 김경민이 뛰어올라 잡아냈다. 42분에는 조규성의 패스를 받은 문선민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였다. 광주도 아사니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공세를 나눴다. 전반 12분 아사니가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이상기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키퍼 정

민기에 막혔다. 전반 17분 아사니의 왼발 슈팅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0-0에서 후반전이 시작됐고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경민이 편칭으로 위기를 넘겼다. 2분 뒤에는 광주 티모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를 시도했지만 공이 높게 났다. 이순민의 오른발 슈팅도 나갔지만 정확도가 떨어졌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뒤 전북이 광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허바 실바의 타닝 슈팅을 김경민이 막아냈지만, 후반 28분 골게 잠겨있던 광주의 골대가 열리고 말았다. 문전 경합 과정에서 뒤로 흐른 공을 문선민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팽팽한 균형이 깨진 뒤 광주가 바로 또 실점했다. 후반 30분 김경민이 몸을 날려 조규성의 슈팅을 막았지만, 문선민이 달려들어 오른발로 흐른 공을 잡아 다시 한번 광주의 골대를 갈랐다.

광주는 득점에 실패하면서 경기는 0-2패로 끝났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개막 세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전남은 지난 11일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K리그2 3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FC안양과의 개막전 0-1패 뒤 경남FC에 0-5 대패를 기록했던 전남은 이날 12개의 슈팅을 날리며 공세를 펼쳤다. 이 중 9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등 공격이 한층 매서웠지만 상대 골키퍼 문정인의 활약에 어려움을 겪은 전남, 후반 36분 마침내 골대를 갈랐다. 상대 진영에서 수비수 실수로 공을 가져온 유혜이가 스로인으로 페널티 지역 왼쪽 앞에 있던 시모 비치에게 공을 넘겼다. 시모비치는 골키퍼를 피해 반대 쪽으로 공을 보냈고, 문정인으로 뛰어든 발디비아가 오른발로 빈 골대에 공을 밀어 넣었다. 경기가 1-0으로 마무리되면서 발디비아의 K리그 데뷔골은 팀의 올 시즌 첫 결승골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